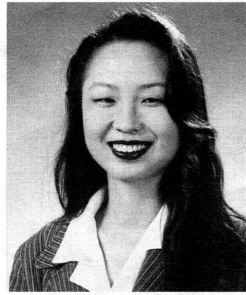


세얼굴

캠퍼스 선교사를 시작하면서

서울대 두꺼운 벽 부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케하고파

대학교를 입학할 때, 두가지 소원이 있었다. '하나님'과 '건강'을 가지는 것이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질만한 소원과...



김선자 선교사 서울대기독교교회

나는 전통적인 유훈교 집안에서 병약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런 나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내가 어디에서 왔고, 무슨 목적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었다.

그런 갈망은 아주 어릴 때부터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그밖의 여러가지를 통해 내가 갈망하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스도'를 알면서부터 나는 예배시간마다 울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물을 흡수하는 스펀지와도 같았다. 뭔가 답답했던 구석이 풀리는 것같더니 나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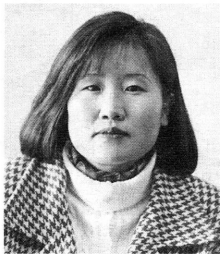
4학년 1학기를 마칠 무렵 나는 하나님의 멋진 계획에 접하게 되었다. 그것은 YWAM에서 하는 UDTS(University Disciple Training School)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캠퍼스 복음화에 힘찬 신앙훈련 쌓아 갈 계획

지금에 와서 기억나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이 어두운 밤바다를 헤매이는 작은 내게 당신이 빛이 되어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모습이다.

그것은 1학년 여름 대학총교회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았던 때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부터 나는 예배시간마다 울지 않을 수 없었다.

프로필



이은미 선교사

- 약력
85년 광주송원대학교졸
85년 성균관대 무역학과 입학
92년 서울신학대학원 M.D.I.V.과정 입학
95년 성북 성결교회 교육전담 전도사
95년 12월 전도폭발 지도자 임상 훈련 수료
96년 현재 홍제동 장로교회 유종동부 교육전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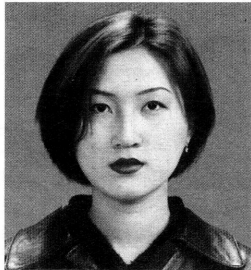
예수를 믿게된 동기 및 간증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절에 다녔고 고 3때 까지 불교신자였다. 원래 내성적이고 혼자서 고민하고 해결하는 성격이었는데, 고 2때 부친상을 당하여 죽음과 인생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고 절대자에 대한 갈구가 생겼다.

나의 겨울방학

처음 접한 헬라이어 성경공부 새로운 신앙관 눈뜨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지난 학기 내내 대학원에 가서 문학을 해야 할지 어학을 해야 할지 망설이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1절을 선물해 주셨다. 나는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았고 곧 이 말씀은 그 후 내가 어떤 공부를 해나가야 하며 어떤 자제로 나의 전공에 임해야 하는 지를 이끌어주고 가르쳐 주는 등불이 된 것이다.



장지은 영문학과 2학년

성경말씀의 일점일획 중요성 크게 깨달아

에는 사전을 옆에 놓고 단어를 찾아가면서 성경 구절을 번역할 수 있는 수준까지 향상되었으니 한 달 동안의 성장으로서 참으로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수업시간마다 성경충만하여 아멘으로 말씀을 배운 결과였다.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대학총교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린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어학이라는 새 땅에 헬라이어로서 첫 걸음을 들여놓게 됨을 황송한 마음 영광스런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그 외에도 장국원 박사님께서서는 Classic에 대한 중요성과 한국의 Christian젊은이들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한층 높은 곳에 서서 제압해야 할 것을 강의 시간마다 간곡히 역설하셨다.

첫 시간에 Alphabet부터 더듬거리면서 시작한 우리는 마지막날인 1월 31일

전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었다. 앞으로 그것은 더욱 구체화되었지만 정말로 나를 향한 신 계획이 온전함을 믿는다. 이제부터 나는 새로운 일을 하게되었다.

서울대라는 두꺼운 벽을 부수고 그리스도께 복종케하는 일이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다. 나는 너무나 부끄럽고 경험도 없지만 진심으로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을 훈련할 것이다.

"캠퍼스사역이 나의 인생"

고, 또한 나도 모르게 눈물을 마구 쏟았다. 그리하여 그이후로 그 교회에서 양육받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다.

선교사로 지원하게된 동기
어려서부터의 꿈이 교사가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성대 무역학과 재학시에 교직과목을 이수하였고 대학4년 교생실습시 대표수업을 하면서 가르침의 희열을 느꼈고 대학졸업후 1년간 상업학교에서 임시교사로 있었으나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같아 교사직을 그만두게 되었다. 진로를 위해 40일간 기도하던 중 서울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려는 결단을 내렸다. 서울신학대학원 시험보는 날, 준비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답을 보여주심으로 인해 합격할 수 있었다. 3년

동안 대학원에 다니면서 전도폭발훈련의 4단계 과정을 이수하고, 코이노니아 공동체훈련을 받으면서 교육목사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 95년 12월 제주도에서 마지막으로 전도폭발 지도자 임상훈련을 받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던중 앞모퉁이의 사역에 대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문득 캠퍼스 선교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 며칠후 이번 캠퍼스 전도폭발훈련 총 지휘자인 김양태 목사의 서울대 선교사역에 대한 권유를 받고 쾌히 승락하기에 이르렀다. 캠퍼스 사역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에 의한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방법에만 가능하며 '성령의 사역'에 의하여 한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서울대 캠퍼스안에 일어날 것을 확신해본다.

월간 제 8 호

1996년 3월 11일

서울대 기독교교회 소식지

진리는 나의 빛

이달의 성구

아름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시편 146:5)

편집인겸 발행인·유은상 / 발행처·관악구 신림2동 103-198 대학촌 출판사내 / 전화·888-9111 FAX·888-9112

사설

진리는 나의 빛

Veritas lux mea— 서울대 뱃지에 쓰여져있는 이 말의 뜻은 신입생들은 몰라도 서울대 재학생들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다.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라틴어다. 언뜻 보면 대학교의 표어로써 적합한 표현인 것 같다. 그러나 좀 더 곰곰히 생각해 보면 결코 단순하고 평범한 말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진리란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 어려운 질문임에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참된 것, 진실된 것, 사실인 것, 그래서 거짓되거나 헛된 것이 아닌 것, 사실 내지는 사대와 합한 것 또는 상응하는 것이라고 그러나 대학 내기는 학문에서 추구하는 「진리」는 그러한 정보보다는 좀 더 원리적이고 보편적이며 통합적인 성격의 것으로 이해하여야 만족스런 정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추구하는 「태도」를 가지며 「방법」을 연구하는 것 자체와 진리를 알고 경험하는 것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진리는 나의 빛」이라고 선언할 때다. 진리는 전자가 아닌, 후자의 경우를 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크고 작은 많은 「진리들」, 상대적으로 부분적이고 일정기간에만 통용되는 성격의 「진리들」도 필요한 것이며 대학에서 추구해야 마땅 할 대상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수단으로 하여 좀 더 보편적이고 종합적인 원리를 추구하려는 노력 또한 대학의 역사에서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

어느 누구보다도 나에게 「빛」이 되는 「진리」를 발견했다고 「증거」하는, 역사상 무수한 사람들, 곧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진리관을 대학인들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은 라틴어의 서울대 표어가 구약시편 27편 1절이 변용·인용된 것이라는 유래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대학 및 학문과 무관치 않음을 너그럽게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새학기 개강예배

96년 새학기를 맞아, 개강예배가 오는 3월 18일(월) 오후 4시 문화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설교는 박우성 목사(헨리 죠지 협회)가 「연합과 섬김」이라는 주제로 전하게 된다.

신입생 입학식 세계대학주역 다짐

기독교 동아리, 환영 축하행사와 전도활동벌어



▲ 서울대학교 제50회 입학식

지난 2일(토) 오전 11시, 96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 입학식이 본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올해는 학부제의 실시로 작년 101개과에서 97개과로 학과는 줄었고 신입생수는 총 5014명이 되었다. 이날 입학식은 약 2만여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선우중호 총장은 식사문을 통해 대학생활에서 유념해야 할 몇가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우선 오늘날처럼 학문의 진보와 산업의 분업화가 빠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공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일반 교양을 두루 갖춘 지성인이 되어 줄 것과 기성의 지식습득 뿐만 아니라 미지의 진리도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힘을 기를 것을 당부했다.

옛 구약시대에는 식민지가 된지 50년이 되던 암계기운에 있는 노예를 풀어주는 회نة제도라는 것이 있었다. 올해로 50년 역사의 회년을 맞이한 서울대학교가 세상 죄의 노예적 상황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진리로 거듭나고 진리로 자유케되는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대해 본다.

음을 말하며 그 주역이 바로 신입생 자신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식당에 운집한 수많은 신입생들은 시종 진지한 자세로 식사문 낭독을 경청하고 교가를 따라 부르는 등 민족 최고 학부의 신입생다운 면모를 보여 주었다.

또한 교내 여러 선교단체에서 진리탐구의 열망에 가득차 있는 많은 신입생들에게 참 진리인 하나님의 복음을 제시하며 전도에 헌신하는 모습도 많이 눈에 띄었다. 조이 선교회에서는 아예 한쪽에 자리를 잡고 도열하여 서서 '축복송'으로 신입생들을 축복하는 등 캠퍼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모습이 식장 주변의 분위기를 한층 훈훈하게 하기도 하였다.

옛 구약시대에는 식민지가 된지 50년이 되던 암계기운에 있는 노예를 풀어주는 회نة제도라는 것이 있었다. 올해로 50년 역사의 회년을 맞이한 서울대학교가 세상 죄의 노예적 상황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진리로 거듭나고 진리로 자유케되는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대해 본다.

캠퍼스복음화위한 전도폭발훈련 개최

이번 학기부터 처음으로 시도되는 캠퍼스 전도폭발훈련은 기독교수와 기독교학생들을 대상으로 3월9일(토)에 시작하여 7월초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기독교교회(신림2동)내 사무실에서 실시된다.

매주 토요일에는 전도교육을 받고 주중에는 훈련자와 2명의 훈련생으로 구성된 전도팀이 전도대상자에게 전도 실습을 하게 된다. 이번 캠퍼스 전도폭발훈련은 기독교수 모임과 서울대 기독교교회(이사장:이복영장로)에서 캠퍼스에서 구체적인 전도실천계획을 모색하던 중 김양태 목사(전도폭발훈련 지도자)를 모시고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 훈련에 참가하는 기독교수로는 유규환 교수(화학교육)가 있고 기독교학생으로는 윤희숙(화학교육석사2), 신지영(수학교육석사1), 이장준(항공우주 94) 등 16명이 있다. 이 외에도 이 훈련을 지원하고, 이 훈련에 참여하고자, 여러 기독교선배와 서울대 캠퍼스 복음화에 뜻을 같이하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한다. 훈련자는 원순옥, 박철호, 신복희 등 총 13명이고 훈련생은 박종희, 백종숙, 권중옥 등 총 21명이다.

전도 폭발훈련은 총 4단계로 구성되며, 30여년전 미국 플로리다주 디 제임스 캐넌 목사에게 의해 처음 실시되었고, 지금은 세계 124개국에 확산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캠퍼스 소식

자연대 기독교인 연합 모임 개최

자연과학대학 기독교수와 기독교학생들의 기독교인 모임이 오는 3월 13일 수요일 오후 5시 56동 106호에서 "대학생활과 신앙"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이 모임의 1부 순서는 '예배 및 신앙간증' 시간으로 이인규 교수(생물학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정영근 교수(화학)와 윤대욱(대기학과 대학원 석사), 이범승(수학과 4학년) 등이 대학생활과 신앙을 주제로 신앙간증을 하게 된다. 2부 순서에서는, 기독교수들과 학생들의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이 모임에 약 50여명의 기독교수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모임을 통하여, 신입생들에게 신앙으로 승리하는 대학생활과 신앙안에 참 과학도로서 학문하는 자세를 제시해주며, 이번호부터 자연과학부로 통합모집함에 따라 소원해지기 쉬운 선후배 관계를 돈독히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준비위원은 박성현 교수(통계학), 정학성 교수(미생물학), 홍종인 교수(화학), 정영근 교수(화학), 전종갑 교수(대기), 김 구 교수(해양학)와, 김인섭(미생물학과 대학원박사), 윤대욱(대기학과 대학원 석사과정)등이다.



▲ 영어교육과 기독교인 모임 회원들.

서울대 태국 선교여행 계획

강신후 교수(공대 무기재료공학)는 6월 22일부터 7월 6일(2주간)까지 태국 선교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강신후교수 부부와 박인용목사(빛과 소금 주안, 은누리교회)부부의 인솔하에 태국 카렌족(어린아 성경학교, 대중집회)과 대학생(울라퐁공립대학, ABAC대학, 황강행대학-방콕소재)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여행에 동행할 총 20명(남녀 각10명)의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참가비용이 있는 학생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란다.

- 여행준비계획
- 3~4월: 준비기도회 및 찬양 주1회
- 5~6월: 준비기도회 및 찬양 주2회
- 6.13.~6.21: 매일 기도회
- 성경중심영어회화: 준비기도회(3~6월호)
- 2박3일공동체 및 전도훈련(4~5월중)
- 태국의 풍습알기(5~6월)
- 기도 후원자 명단작성: 수시로 개개인이
- 재정: 자비량 60만원가량
- 연락처: 강신후교수(무기재료공학) ☎880-7167
김성현(항공우주공학 94) ☎3472-0246

영어교육과 기독교인모임 성장을 위해 '날개짓' 매주 목요일 정기모임가져

사범대 전체 크리스천 모임은 작년부터 결성되었고, 영어교육학과 크리스천 모임도 그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지난해 학기 초에 93학번 송도영, 박혜은 등의 자매들을 중심으로 학과 복음화라는 명확한 비전을 품고 모이기에 힘쓰는 가운데 현재까지 꾸준히 모임을 유지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매주 목요일 11~12시 동안 11동 빈강의실에서 6~7명의 학우들이 정기적으로 교제를 갖고, 찬양과 성경공부와 나눔의 시간들을 가졌다. 96 현재는 박혜은(93) 신광세형제, 조성수자매(94) 이보희자매, 김장현형제, 오민숙자매, 박선하(95) 자매등 7명가량이 참석하고 있다.

연건동 캠퍼스 소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의료사역에 앞장

치과대 기독교학생 연합

연건 캠퍼스에서는 장차 의료선교를 꿈꾸며 이땅에 하나님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준비하는 청년 기독교학생들의 모임이 있다. 연건 기독교 학생연합은 매 학기마다 개강 연합예배와 중강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지난해 가을에는 연건 학우들을 대상으로 전도 집회를 열기도 하였다. 평소에는 의대 간호대 치대가 각기 모임을 갖고 있으며 이 중 치과대학 기독교학생회를 소개하고자 한다.

치대는 6년 과정중 예과 2년을 판악에서 마치고 본과 4년을 연

건에서 보내게 되는데, 처음 본과에 올라 오게 되면 비편 환경과 잦은 시험속에서 지치게 일쑤이다. 우리는 그런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주안에서 노력하고 있다. 치대내에 기독교학생회가 세워진지 30년이 넘었으며, 그동안 이곳에서 배출된 믿음의 선배님들은 기독교치과의사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다.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선교지의 상황을 접해보며 선교에 대한 많은 도전을 받기도 한다.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모슬렘지역 등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그들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 있다. 우리의 사역은 전문의료선교로서, 현지에 병원을 세우고 현지인들을 치료해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기독교 치과 의료인들의 모임인 치과 의료선교회에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으며 매년 2차례 단기선교를 떠나

도 한다. 이 단기선교에는 우리 기독교학생회 지체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게 되며 우리 학생들에게도 선교의 산 현장들을 직접 체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기독교 학생회는 본과 1,2,3,4학년 학생들과 수련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매주 한번씩 모임을 갖고 있으며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말씀과 기도로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갖고 있다. 그 외에 아침 Q.T모

임과 점심 기도회, 방학중의 수련회 등으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중보기도하며 교제하고 있다.

또, 우리 기독교학생회에서는 지난해 가을까지 신림동으로 전교를 나가기도 하였다. 우리 기독교 학생회 지체들은 이곳에서 섬기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각자의 삶을 헌신하려 한다. 양육문제를 비롯하여 좀더 성숙한 모임으로 자라기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여러분들의 많은 중보기도가 매우 절실하다.

우리에게 주신 의료의 달란트를 통해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선포할 것을 우리 치과대 기독교 학생회는 기도하며 훈련받고 있다.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사역은 전문의료선교로써 현지에 병원을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박준규 (92학번 치의학)

단 신

서울대 교직원 신우회

서울대 교직원 신우회는 매주 수요일 12:10-12:40분, 36동-101호에서 열린다. 매월 3회는 예배, 1-2회는 찬양을 드리며 현재 기도제목은 교직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것이다.

교수 기도회

매주 금요일 아침 7시 23동 202호에서 모인다. 주 기도 제목은 '캠퍼스 복음화'이다.

교수부인회

약 15명이 참석하여 매월 1회 각 가정을 순회하며 모임을 갖는다. '캠퍼스 복음화'를 주요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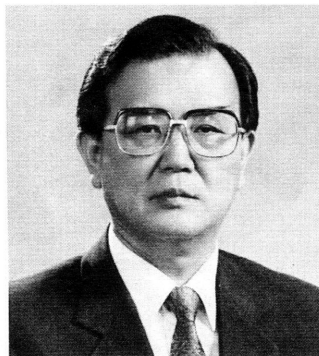
이방성 목사 초청 특별 집회 19일까지 대학총교회에서

오는 17일(일)부터 19일(화)까지 5:30에 대학총교회 본당에서 이방성 목사 초청 특별집회가 있을 예정이다. 이 집회는 대학총교회에서 주최하고 서울대 기독교회가 후원하며 '삶을 사랑하는 그대에게' 라는 주제로 이방성 목사의 말씀과 함께 찬양 시간이 있을 예정이다. 이방성 목사는 미국 Fuller 신학교 Th.M.Ph.D와 미국 Azusa Pacific Univ. 에서 사회학 객원 교수를 역임하고 계시며 kingdomizer 선교회 국제 대표로도 활동하고 계신다. 구체적인 내용은 882-0263(대학총 교회)와 878-0448(목사관)으로 문의바란다.

특 집

<해체의 시대>의 선각자 키아케고아 (1)

세기말적 위기 현상 극복의 길



강 학 철

서울여자대학교교수, 철학과 5학번

포스트모던의 시대에 진입했다는 정신사적인 상황 진단이 주변에서 요란하다. 포스트-마르크스주의의 대안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현대의 정신적 공백이 허무주의를 등장시킬지 모를 세기말적 위기의 시대가 오늘의 시대가 아닐까 싶다. 사실 그동안 신(神)없는 신국(神國)건설의 유포 피아직 이데올로기 운동과 다름없이 과학 기술만능주의에 의한 지상낙원의 건설 운동도 역사적 (아이러니)의 부정적 때문에 미래적 현실의 등장을 위해 해체의 과정을 겪고 있다. 이런 해체의 시대를 실존적으로 앞질러 체험하고 그 극복의 방도를 추구한 현대의 예언자적 사상가가 키아케고아이다.

일찍이 키아케고어(1813-1855)는 자기 자신이 살던 시대를 <해체의 시대>(Age of Disintegration)로 파악하고 있음을 그의 저서 <나의 저작활동의 편집>에서 찾아 볼수있다. 그에 의하면 <해체의 시대>의 특징은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견고한 것이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대의 인간은 더 이상 자기의 삶을 규모 있게 만들 절대적인 척도를 갖지 못한다. 영원한 가치에 대한 어떠한 신앙도 온갖 가치의 평준화(수평화)로 인해 대치되어

버린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할 이런 정신적 상황은 오랫동안 준비되어 있었다. 그런데 역사에 등장한 그리스도교 신앙운동이 고대의 이교사회(異敎社會) 세력과 치열한 접전을 감행하는 동안 그리스도 교단의 확립과 함께 원시 그리스도교의 시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신앙운동이 인간에게 영원한 가치에 대한 존경심을 창출함과 동시에 그 인간에게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가 주세기를 거치는 동안에 그리스도교의 진리는 인류에게 있어서 확고 부동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윽고 근대 시민사회의 등장은 그리스도교의 진리로부터 사람의 마음을 돌려 놓고 근대 이교정신 (modern paganism)의 세력확장을 촉진 시켰다.

원래 그리스도교는 인간에게 그 자신의 한계와 죄를 지적하고 복종과 신앙을 요구했다. 그러나 근대인은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되기 원했고 오히려 인간의 지식과 권력에 그 한계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자연과학과 철학은 이런 근대사회의 자율적 성숙을 가속화 시켰다. 신앙에 의해서만 오직 인간은 영원한 진리와 관계를 맺을 수있다는 그리스도교적 사상은 인간의 집단적 이성으로 온갖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인간적 도전에 자리를 빼앗겼다. 인간은 과학적 관찰과 논리적 사고를 통해 성취된 것 이외에 다른 진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게끔 되었다. 르네상스 운동 이래로 점차 우세를 점유했던 이런 사상동향은 철학의 경우 해체에 와서 그 절정에 이르렀다. 해체는 시종일관 인간은 자기 자신 가운데 즉, 자기의 변증법적 이성가운데 진리 전체의 부존재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또한 엄밀한 논리적 방법을 동반한 사고를 하기에 신과 세계와 인간에 대한 진리를 속속들이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해체의 주장대로라면 인간의 지식의 영역과 신의 그것은 일치하는 것이기에 인간은 신과 동등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해체의 변증법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이성 인식에 이렇다할 한계도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적 신앙이 차지할 어떤 여지도 남지 않는다. 따라서

이성은 삶의 현실에서 선두주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반면 신앙은 그리스도교의 초창기부터 다양한 형태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근대정신과 근대적 지식에 의해 패배당해서 후퇴할 수 밖에 없게 된것이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나쁜 일은 해체가 그의 철학 체계를 통해서 초월적 세계의 그리스도교적 개념들을 말살하려 한 것이다. 해체가 제시한 신의 이념(Idee)은 완전히 이 현실과 통합된 절대자의 개념이다. 그래서 국가의 도덕적 구조를 신의 이념의 최고의 자기 표현(manifestation)으로 삼은 것은 전적으로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러나 윤리적 관점에서 볼때 키아케고아가 지적한 바대로 이 해체철학은 인간의 전진이 아니라 소크라테스 보다 이전 시대의 이교적 생활 태도로로의 역행인 것이다. 비록 해체가 많은 칭찬의 대상이 될만한 사상가라 여겨질지라도 그보다는 소크라테스의 인간적 시야가 훨씬 우월한 것이다. 요컨대 소크라테스는 국가 보다 고차적인 질서의 세계를 믿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이 확신을 그의 생애 가운데서 현실화 시키려고 시도했다. 이와는 반대로 해체는 현실국가를 최고의 법정이라 생각함으로써 영원의 세계로 부터 도망치려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켰다. 이처럼 해체철학은 국가나 현세(temporal life)의 우상화(deification)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창출했던 것이다. 바로 이것은 해체가 국가를 최고의 가치체로 고양시킨으로써 인간을 초월적 세계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이탈시킨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이처럼 많은 주장을 한 해체가 실제로는 그의 철학을 통해서 근대적인 가치의 상대화를 근거지어 주었다는 사실에는 엄청난 (아이러니)가 있다. 왜냐하면 해체 철학이 초래하게 된 이 치명적 결과를 그 시대가 통찰하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은 해체 철학을 통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강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그리스도교회에 소속된 인사들에게는 명예로운 얘기가 될수 없었기 때문이다.



키아케고아

간은 그의 영적 붕괴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키아케고아는 이러한 영적 생활의 위험한 상황의 맨 한가운데 서 있는 셈이다. 그는 그 위험을 발견한 후 그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묘사했다: "마치 마지막으로 짐의 대청소가 끝난후 한마리의 거미가 눈에 잘 띄지 않는 한구석에서 가가스로 망가진 자기의 삶을 꾸리면서 닥쳐 올 폭풍우를 대비하듯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비문학적 후서) S.V., VII, P.47 참조) 또한 그는 그의 만년의 (일기)중에서 차츰 접근하는 그의 세계로 부터 도망치려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켰다. 이처럼 해체철학은 국가나 현세(temporal life)의 우상화(deification)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창출했던 것이다. 바로 이것은 해체가 국가를 최고의 가치체로 고양시킨으로써 인간을 초월적 세계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이탈시킨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이처럼 많은 주장을 한 해체가 실제로는 그의 철학을 통해서 근대적인 가치의 상대화를 근거지어 주었다는 사실에는 엄청난 (아이러니)가 있다. 왜냐하면 해체 철학이 초래하게 된 이 치명적 결과를 그 시대가 통찰하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은 해체 철학을 통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강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그리스도교회에 소속된 인사들에게는 명예로운 얘기가 될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키아케고아는 해체 철학과 새로운 자연과학이 개발한 이 근대적 발전 가운데 갖는 위험한 경향을 재빨리 감지한다. 그는 이러한 사상들이 영원한 것을 말소시키려는 시도임을 파악했다. 이런 사상들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신앙을 인간에게서 박탈함과 동시에 인간의 지위를 강등시켜서 인간 스스로 자기가 시간적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상상케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근대적 사상들에게 굴복함으로써 인

간 키아케고아는 해체 철학과 새로운 자연과학이 개발한 이 근대적 발전 가운데 갖는 위험한 경향을 재빨리 감지한다. 그는 이러한 사상들이 영원한 것을 말소시키려는 시도임을 파악했다. 이런 사상들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신앙을 인간에게서 박탈함과 동시에 인간의 지위를 강등시켜서 인간 스스로 자기가 시간적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상상케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근대적 사상들에게 굴복함으로써 인

당신의 사랑은 보이는 증거를 초월합니다

키아케고아의 시

당신이 내게 고귀한 선물들을 가득히 주셨을 때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나는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었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해갔습니다. 나는 무엇에도 성공하지 못했고 매년 새로운 불행이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이 행복이 더 컸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의 사랑은 당신을 향한 사랑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여야만 하는 그런 인간의 사랑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 절단코 당신의 사랑은 보이는 증거를 초월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행하시던 그것이 무한한 사랑입니다.

내가 당신이 사랑이심을 느꼈던 그 때보다 내안에 더 놀라운 진리가 자리잡은 때가 있었을까? 그 때는 내가 당신의 사랑의 징표를 가졌던 때가 아닙니다.

오! 그러나 나의 영혼이 지칠때 그때 당신은 아무런 사랑의 증거없는 자로 나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키아케고아 씀 김효실 옮김 (영문과 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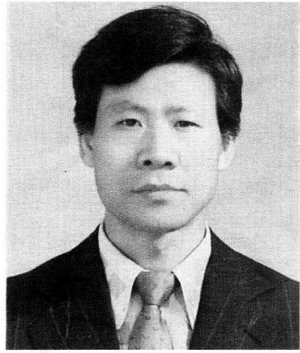
내게는 그런 것들이 필요치 않는 그대로의 원칙이 되었던 그 때였습니다.

오! 그러나 나의 영혼이 지칠때 그때 당신은 아무런 사랑의 증거없는 자로 나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키아케고아 씀 김효실 옮김 (영문과 대학원)

대학광장

“서울대 복음화에 앞장서길”



우 규 환 교수

화학 교육과

힘난한 수험생활을 끝내고 96년 3월 서울에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신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

이러한 기쁨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스승의 훌륭한 가르침과 부모님의 정성스러운 헌신과 자신의 피나는 노력으로 얻어진 값진 결과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서울대 합격과 입학의 흥분과 기쁨을 잠시 접어두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뜻, 그리고 특별히 서울대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전 나는 조카의 결혼식에서 주례사를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집을 짓는 일에 비유한 내용인데, 신앙은 집을 바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신부는 가정을 잘 가꾸어가는 직분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은 각 전공분야에서 여러분이 그러한 집을 짓는 일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이건 그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성취한 사람을 우리는 대가라고 부릅니다. 크고 튼튼한 좋은 집을 우뚝 세운 사람이라 하겠지요.

나는 어떤 설계도면을 따라서 이 공사를 어떻게 진척시킬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 왜 예수님을 따라 동행해야 하는가?

깊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반석위에 건축을 시작하십시오.

서울대 합격과 입학의 흥분과 기쁨을 잠시 접어 두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뜻, 특히 서울대학교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4년동안 자신의 인생을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강의실, 실험실, 도서관, 연구실을 부지런히 다니십시오. 술, 담배, 노래방은 멀리 할수록 좋습니다. 내 힘만 의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항상 깨어서 경건한 간구를 드십시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주를 찾았으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시 119:9-10)”

* 예수님의 교훈은 무엇(What)인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8)”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여 신학교에 풀지로 들어간 겸손한 자가 서울대학에 수석으로 들어 간 교만한 자보다 큰 상을 받으리라는 경고를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마태복음 7:24-25)”

*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민족 복음화의 초석이 될 서울대 복음화를 위해 96년 신입생 여러분이 앞장설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속한 학과가 예수 안에서 하나로 뭉치고, 내가 속한 단과대학이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을 베풀어 4년후 2000년에는 서울대 3만 학생 교직원 모두 예수안에서 연합된 한 가족 되기를 열심으로 기도하십시오.

대학총교회와 서울대 기독교센터를 중심으로 전도폭발운동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일꾼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전도할 것이요, 아직 복음의 비밀을 영접치 못한 신입생은 성경을 읽고 교회에 출석하여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학식이 많고 지위가 높은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를 찾아왔을때 예수님께서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무쪼록 신입생 여러분의 대학생활에서 깊은 신앙의 훈련과 성장이 전공학문의 큰 집을 짓는 사역과 함께하여 서울대 캠퍼스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를 바랍니다.

신입생 간증

좌절과 방황을 이겨낼 수 있던 힘

재수를 했... 나 자신에 대한 자책감에 시달리면서 - 모든 것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두려움, 슬픔... 이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을 건널 수 없을만큼 힘들게 했고 난 3월 부터 이미 깊은 방황을 시작하고 있었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난 학생도, 일반인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으로 가족과 떨어져, 친구들과 떨어져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다. 학교다닐 동안 난 그리 충실한 모범생이 아니었으므로 어쩌면 내가 실패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도 난 내 자신에 대해 교만한 함을 버리지 못한 채 모든 잘못과 어긋남들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내 정신은 점점 더 황폐해져갔고 난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괴로워했다. 내가 살던 기숙사에 있는 8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게 되어 있었는데, 몇몇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독실한 크리스천들이었다. 나는 어렸을 때 부터 교회에 다니긴 했지만 세례까지 받았으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과 착실한 믿음생활이 없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지독한 회의에 빠져들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의 Q.T라든가 책상머리에 붙어있는 성경구절에 그리 익숙해질 수 없었고 그런 내면의 갈등때문에 오히려 나의 신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장 은 전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95학번

어쨌든 친구들의 이야기와 기도하는 모습들에 이끌려 나는 고3때 거의 중단하다시피 했던 교회 출석을 다시 시작했고 재수생활이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난 충실한 생활의 기반을 다져갈 수 있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이끄셨다는 확신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내 자신의 부족한 능력만이 마음에 걸려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눈물과 불안감으로 괴로워했다. 그러다가 합격자 전날 어머니가 사다주시는 기도문 책을 읽었고 난 그 책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예전부터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실패했을때 성공했을때 그 어떤 경우에서도 주님은 내가 갈길로 준비하고 계셨다.

합격자 발표 전날 부터 당일 오전까지 난 꼬박 밤을 새우며 그 기도문을 읽고 쓰고 외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견뎌낼 수 있을 만큼의 주님의 뜻을 믿노라고 다짐했다.

드디어 난 합격했고 내게 사랑과 진정한 신앙을 주었던 친구들과 함께 관악의 교정에 섰다. 봄기운이 완연한 관악의 3월속에서 나 자신의 교만과 방황으로 힘들었던 작년 3월을 생각하며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커다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거듭 감사드리며.....

후배에 주는 글

“성경묵상으로 하루일과를”

초등학교때나 중학교때 방학을 하게되면 처음 1주일엔 시간이 상당히 느리게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던 것이 3주 정도 지나고 나면 1주일일 하루같이 지나가버린다. 무엇보다 제대로 하는 것 없이 시간만 확회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 이같은 경험을 해본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

하루는 24시간, 즉 지구가 1회 자전하는 단위이다. 그렇지만 그 하루를 느끼는 주관적 시간은 각기 다르다. 재미있는 영화를 보는 두시간은 금세 지나가버리지만 재미없는 강의(?) 한시간은 지지리도 길게 느껴진다. 이렇듯 시간은 사람이 쓰기에 따라서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방법엔 어떤 것이 있을까? 난 개인적으로 하루가 짧다고 느껴지도록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시간을 잘 관리하고 소비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

다. 나의 하루는 Q.T를 가지는 것으로 시작한다.

간단히 성경말씀을 보면서 하루를 어렵잡는다. 성경묵상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들과 일들을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하루를 대충 요약해본다. 그리고 낮 동안은 아침의 이런 생각을 그저 실행한다. 특별한 규칙이 있다면 서울에서는 시내(종로, 신촌, 강남 등)에 나갈때는 남을 잡고 나가서 한꺼번에 일을 보는 것이다. 서울은 왕복 교통시간이 보통 2시간이다. 밀리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한번 나가보라. 금세 피곤해진다. 밤에 잘때는 될 수 있으면 자정을 넘기지 않는다. 그리고 외박하지 않는다. 충분한 숙면을 위해서도 그렇고 잠자는 시간이 고정되면 다음하루의 시간도 놓치지 않는다. 자기전에 꼭 그날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낮의 일에 대해 점검과 기도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하나님께 아뢰고 하루를 맺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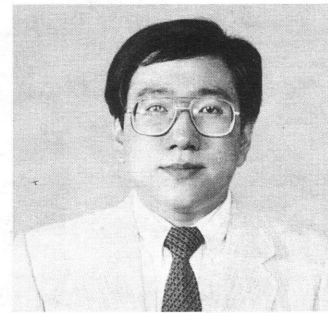
구 원 철 지안대학대학 행정학과 89학번

대학광장

신입생에게 주는글

모든학문의 기초는 바로 예수그리스도

먼저 어려운 여러과정들에 대학에 입학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새 생활에 대한 동경과 앞날에 대한 희망으로 콧 처미를 짓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저는 여러분의 선택이자 교수의 입장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학'이라고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까? 저에게는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심숙준 전 입학했을 당시에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명예를 얻기 위해 혹은 부를 추구하기 위해 대학에 왔다는 생각을 양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일차적인 목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진리'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그 해답이 성경에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



김성현 교수 경주국대 화학과

대학이 세워질 때의 아담과는 달리 지금의 거의 모든 대학은 오히려 학문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며 대신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 놓았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주 원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더 이상 창조주로 섬기지 않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물이 저절로 생겨났다는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라든지 하는 사상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심각한 죄를 저지르면서, 학문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입니다. 학문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주인을 주로 인정치 아니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문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명령(창1:28)을 바탕으로 창조의 위대함을 나타내는데 쓰여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대학생으로서 성경을 통해 이 문제를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되 인간적인 모든 편견을 벗고 성경 스스로가 말하는 바를 받아들이십시오. 많은 위대한 학문의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 말씀에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조의 위대함을 대학생으로서 성경을 통해 숙고 하길 바란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14:6). 대학은 진리를 추구하는 전당인데 예수를 떠나서는 대학에서는 진정한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학문은 예수를 떠나서는 결코 온전하다할 수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학문의 기초는 예수입니다. 많은 학문에 붙여진 -logy는 바로 logos를 뜻하며 이 logos는 성육하신 말씀, 바로 예수란 뜻입니다. (요1:1-3). 또 학문을 뜻하는 science는 scintia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앎'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의 대학이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학문의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로

신입생 간증

오늘도 어김없이 자명종소리에 잠을 깨, 신선한 관악의 공기를 마십니다. (그리고는 맛있는 기숙사 밥을 먹으러 가지요.)매일 아침 쫄 때마다 제가 서울대생인게 꿈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는 흐뭇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96학번 법학과 최은삼이라고 합니다. 저는 95일에서 패배의 쓴 잔을 맛보았습니다. (정말 쓰더군요.) 처음엔 무척 슬펐지만 결국 현실을 인정하고 대구에 있는 일신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성적이 올라서 무난히 합격하리라는 기대를 품고 재수 생활을 시작했지요.

그렇지만 그런 단순한 기대에 불과했지요.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이 법관이러면 왜 나를 떨어지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과 그 당시 주위에서 농담 반진담 반으로 들려오던 목회자로서의 진로에 대한 말들이 저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서울 법대에 가려는 게 내 욕심은 아닌가? 실제로 재수 학원에 가보면 재수생은 행복한 사람입니

*혹시 목회자가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로 한참 고민하던 차에 친구가 책을 한 권 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란 제목이었습니다. (꼭 한번 읽어 보세요.) 그 책의 내용을 간추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최 은 삼 (법학과 96학번)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 요세 같은 성경의 위인들을 원 래부터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비범한 인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위인으로 만든 것 뿐이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이 계획하신 바를 그렇게 하기로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재수 학원에 가보면 재수생은 행복한 사람입니

96학번 후배에게

사랑의 참뜻 찾을수 있는 넉넉한 마음갖길

시간이라는 것이 연속적이고 인과적인 속성을 지녔 하지만 연관고리 즉, 분기점과 같은 중요한 시기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 대입과 함께 찾아올 대학생 활이 그러한 때 인듯 싶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서울대 경제학부에 입학하던 제 마음은 무척이나 설렘이던 고교시절 막연하게 그려내 던 유토피아로서의 대학을 기대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삶에는 나름대로 그 때만의 계획과 아름다움이 있다는 생각이 대학1년을 돌이키면서도 별 후회감을 느끼지 않도록 뒷바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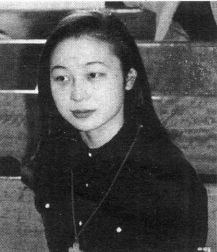
물론 제 대학1년이 평탄하고 모든 결과 -대인관계 나 신앙문제, 학과공부 등 -가 좋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론 너무 힘들다는 생각에 휴학을 생각하거나, 기숙사 방에 혼자 앉아 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고 부끄럽던 과거의 치부들을 통해 그 분께서 지금은 절 더욱 큰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하셨음을 믿기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1년 대학생활을 먼저 경험한 선배로서 드릴 말씀은 많지만 정말 많고, 적다면 적 적지만 지면을 통해 두어가지 얘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외적인 생활에서 '우선순위'를 현명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1년간 인간관계면에서 가장 힘든 것이 이것이 아니었나 합니다. 저도 1년간 학과와 교회, 동아리, 교우관계 등에서 시간과 관심의 배치가 무척이나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제겐 무척이나 다 소중한 것들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시간 내에서 이것저것 톺아보면 결국 남는 것은 피로감과 불만족이었음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후배님들이 자신의 마음에서 울리는 소리를 들기를 원합니다. 일단 결정된 우선순위에 하위항목에 미련을 갖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단지 한 가지 덧붙이는 당부는 이것이 그것들의 완전한 배제와 무관심을 뜻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둘 사이의 조화가 무척이나 어렵게 보이겠지요? 우리의 삶중에 그러한 갈등이 없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힘내십시오. 대학 1년 좀 더 많이 생각하며, 선배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삶을 잡아가길 기도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지요. 이진 내면에 관한 얘긴데 후배님들이 자신을 사랑하며 존중하는 이들이길 바랍니다. 전 나름대로 제 자신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가늠하고, 교만에 차지 않았다고 믿었는데 지난 1년의 생활은 바로 이런 생각이 교만임을 입증해 주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껏 써먹어왔던, 적어도 어떤 분야에선 그랬을 여러분이 앞으로 많이 깨지리라 생각합니다. 똑같은 기회도 어떤이에게겐 시험이 된다고요.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진정 자신을 사랑하고 경직하게 바라보길 기도합니다.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1년간 제게 가장 힘들었던 '사랑'이란 단어가 좀더 후배님들의 가슴에도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너무 쉽게 얻어지리라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이 많은 성장의 기간이길 바랍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제 자신이 가장 부담스럽게 여겼던 일이었는데, 지난 여름에 만난 풀꽃과의 대화가 이렇게 저를 떠받칩니다. 분주하게만 보내지 말고 주변을 둘러보며 사랑과 의미를 찾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길 기도합니다.



김 유 이 (경제학부 95학번)

다. 삼수,사수, 장수가 수두룩하고 심지어 40이 다 된 나 이에도 대학에 들어가려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실력이 부족해서 늦게까지 대학에 못 들어간 게 아니 더러구요. 그 사람들을 보면 생각했습니다. 결코 성적으로 나의 삶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구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든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대네." (찬미 수록 곡)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재수 아니 삼 사수를 해서 멀리 돌아간다 하더라도 만약 법관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라면 그분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목회자가 저의 길이라고 해도 열심히, 묵묵히 살다보면 제가 어느 순간인가 목회자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에만 전념했습니다. 또 주일에 시험을 보는 종로 평가 교실도 그만 두기로 했구요. 하나님이 시간을 도둑질하면서까지 공부해서만 들어가는 대학이라면 들어가지 말고도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결국 저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전도여행기

■ 태 국

불교도 달린 마음에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증거

우리 기수(UDTS13기)에게 주어진 것은 태국과 베트남의 단기 사역이었고, 나는 태국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11월 부터 전도여행을 준비하면서 내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재정과 건강과 가족의 허락이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께서는 출발하기 전까지 재정을 넘치도록 채워 주셨고 부모님도 반 이상의 액수를 주시면서 안부까지 해 주셨다. 드디어 12월 26일 피곤한 몸으로 태국으로 향했다.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 전도로 복음화된 다후족 마을 방문, 순수한 인간성 느끼며 주님 사랑 체험

우리가 6주 동안 도와드려야 했던 분은 한국YWAM에서 파송된 김남현, 안소영 선교사님 내외였다. 그분들은 방콕에서 버스로 약 7시간 떨어진 콘켄(Khon-Kaen)이라는 도시에서 사역하고 계셨다. 콘켄은 태국 북동부 지방의 중심도시로 우리나라의 중소도시만한 규모를 가진 시골도시이다.

우리가 간 시기는 태국에서도 날씨가 가장 좋은 건기에 해당된다. 초여름 날씨에 화창하고 구름을 찾아보기 힘든 하늘은 나의 몸을 회복시키시기에 충분했다.

태국에서 5년째 사역하시던 선교사님도 이렇게 좋은 날씨는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특별히 좋았다. 태국은 종교 자유 국가이며 선교사 비자가 허용되는 나라이지만 강한 불교 영향의 국가라 할 수 있다. 태국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큰 기둥은 왕과 불교이다. 왕은 정말로 그들의 왕이며 구세주며 날마다 경배를 드리는 대상이다. 또 곳곳마다 화려하게 지어놓은 집은 모두 사원이다.

또 집집마다 작은 사당이 있고, 그들의 종교를 몰으면 누구나 자랑스럽게 '불교'라고 한다. 그 외에 매춘, 마약, 빈부차, 윤영론 등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영적전투를 해야 했다.

우리가 6주동안 주로 한것은 콘켄대학교, 콘켄교회와 지교회들, 초, 중고등학교들, 산족(hill tribe)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선교사님의 선교와 선교사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콘켄대학은 지방 명문 국립대학이며 크기가 서울대의 약 10배나 된다. 감사하게도 그 학교에는 약 30여명 인원의 기독교 학생회가 있었다. 기독교 학생회의 반 정도가 중국계이며 대체로 3-4대가 기독교 집안인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항상 전도하며 계속해서 신입회원을 늘리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과 연결하여 다른 특별한 사역이 없는 날마다 캠퍼스에서 1대1전도를 하였다. 영어로 접근하여서 태국말로 된 전도지를 읽히는 것이었는데 유순한 그들도 종교만큼은 마음이 닫혀져 있음을 보았다. 한국에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결실물이었지만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강하게 느끼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콘켄을 떠나는 마지막 날에는 캠퍼스전도 집회를 하였다. 그때 생긴 초신자와 그동안 전도했던 사람들을 기독교생회에 연결시킬 수 있었다.

콘켄지방에서 가장 큰 교회가 콘켄교회인데 교인 수는 약 100-150명 가량이다. 그런데도 시골에 지교회까지 6-7개나 있으며, 그곳은 우리 선교사님이 주마다 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였다. 진실하고 사랑이 넘치던 그들의 예배모습들이 생각난다.

콘켄지방에서 가장 큰 교회가 콘켄교회인데 교인 수는 약 100-150명 가량이다. 그런데도 시골에 지교회까지 6-7개나 있으며, 그곳은 우리 선교사님이 주마다 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였다. 진실하고 사랑이 넘치던 그들의 예배모습들이 생각난다.



▲ 불교국가인 태국에서 가진 전도여행은 복음선교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주었다.

초, 중고등학교는 약 10군데를 방문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함께 있는 Mission School이다. 교장선생님이하 교사들의 뜨거운 열정과 우리의 사역이 함께 빛나던 때였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며 그 어린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난다. 그들의 반 정도가 세로이 결심했다.

그 외의 학교들은 문화교류의 명목으로 방문하여 한복을 입고 우리의 예배를 보여주며 중보기도하고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식으로 하였다.

약 4박5일 동안 12시간 야간 버스를 타고 치앙라이(북부)로 이동하여 산족을 방문했던 적이 있다. 우리가 간 곳은 라후족이 사는 마을이었는데, 이곳은 우리나라의 기성교단에서 말아 교육하고 있었다. 사실 산족은 거의 복음화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관건은 학생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그들의 민족과 혹은 타이족으로 보내는 일이었다.

꼭배와 코끼리를 타고 3시간 동안 산을 등반하면서 만났던 그들은 너무나 순수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주님의 자녀들이었다. 개인적으로 주님의 자연과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으로 몸이 지칠 줄 몰랐던 시간들이었다.

그 밖에 나한자촌 교회와 어린이날 행사 등에서 많은 사역을 하였다. 어느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도전과 자상함으로 '선교는 싫다.' 라고 가르치셨던 김남현 선교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김성일 선교사님과 배종원 선교사님, 김동호 선교사님, 홍풍에서 오신 선교사님내외 이랜드에서 파송된 추구 선교사분들, 방콕의 선교센터에 계신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김 성 이 함공주공부학 92학번
입학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상담을 환영합니다.
서울대기독교교회
☎ 888-9111

김 성 이 함공주공부학 92학번
입학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상담을 환영합니다.
서울대기독교교회
☎ 888-9111

가운데 배운 것은 모든 돈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법칙은 사교 파는 것이 아닌 주고 받는 것이며 주 안에서 서로 통용하는 flowing에 대한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휴학 기간 안에 아르바이트하며 모아 놓았던 350만원의 재정이 있었지만 출발 일주일 전에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모두 flowing을 하고 강한 부담감에 다시 15만원을 작정했다. 그 때는 돈이 생길 곳이 거의 없는 출발 전날이었는데 출발 전 날까지 교회의 세명의 형제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확히 15만원을 공급하셔서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억이 있다.

홍콩을 거쳐 인도 델리에 도착한 우리 300명은 3일 동안 먼저 선교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강의와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 기억하며 감사했다.

진 서 준 홍의대 4년

공동체 탐방

대학촌 신앙생활관

서울대 복음화 일꾼 양성의 요람

대학촌 신앙생활관은 89년도에 서울대신 교장학회가 서울대의 복음화라는 선교방향에 따라 세운 기독교 공동체 생활관이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빛과 소금이 되는 생활을 했는데 그 바탕은 그들의 공동체 생활이었다 생각이 든다.

생활관의 9식구는 같은 그리스도인들이고 서울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지만, 전공하는 분야가 다르고 출신지가 각기 다르다. 농업생명과학대학, 사회대학, 공과대학, 인문대, 법대등 그리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등 그러나 생활관의 공동생활을 통하여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변화시키는 복음적 공동생활의 힘이 매우 크다는데 놀라울 뿐이다.

생활관은 피곤에 지친 우리가 쉬는 공간, 공부하는 공간 그리고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연습하는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생활관의 삶은 아침 6시 30분 기상과 체조로 시작된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아침 시간을 꾸며며 이불 속에서 지내는 비효율적 시간 활용으로 인해 허덕이는 것에 비교해서 우리는 새벽에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한다. 그 후 아침 Q.T를 방별로 하고

'방씩' 끼리 '나눔' 하게 된다. Q.T생활의 유익이야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생활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아침에 하는 Q.T는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채워준다. 토요일 아침에는 모두 한 방에 모여 Q.T는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채워준다. 토요일 아침에는 모두 한 방에 모여 Q.T와 '나눔'을 하면서 서로 도전을 받고 서로를 또한 잘 이해할 수가 있다.

작년까지 많은 사람들이 청소에 관해 지적을 했다. 그래서 지금은 주중에 한 번 토요일에 한 번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 전체가 같은 시간에 청소를 한다. 여러분들이 최근 생활관에 들어서 참 깨끗해졌다고 많이 얘기 하신다. 7시 30분에는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그후 개인적인 활동으로 하루를 보낸다. 밤 11시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전체 기도회로 모이게 되는데, 기도회도 준비없이 그리고 시간만 오래 걸리는 단점을 보완해서 인도자가 준비하고 나머지 참석자도 전체 기도회로 모이게 된 5분간 기도회 준비를 하고 모이고 전 시간 가까이 되던 기도회를 30분 정도로 해서 시간의 부담을 줄였다.



▲ 대학촌 신앙생활관은 서울대 복음화 목표로 세워진 공동체 생활관이다.

지금 관장으로는 대학촌교회 성기문장로(사법연수원교수)님이 맡고 계시고 이영록 집사(대법원 연구원)님이 부관장으로 수고 하시면서 매주 화요일 저녁에는 같이 모여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 교회의 여러 어른들은 아주 큰 관심으로 기도해 주신다. 특히 우리 대학촌 생활관의 자랑의 하나는 주방을 맡으신 윤석범집사님이다. 항상 맛있고 영양 높은 음식으로 공급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다.

우리 대학촌신앙생활관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못하나 여기에서 생활한 사람들

가운데 목사님도(박성일 목사)나오고, 교수도 나오고(연변과학기술대학 부총장인 이준근 박사) 대 연구소의 연구원들 고시에 합격해서 정부기관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대법원에서 일하는 기자들 그리고 유학해서 연구에 열중하는 사람들도 배출되었다.

세계와 한국의 역사를 새롭게 할 인제가 이곳을 통하여 많이 배출되기를 기도하시는 교회어른들과 함께 기도하다보면 아껴가 무거워지기도 한다.

권 혁 농업생명과학대학93년

한사랑 선교회

희개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 민족과 교회와 이웃사랑을 실천

한사랑선교회는 학생회관 327호에 위치하고 있다. 한사랑선교회는 1971년 10월 19일에 선교의 사명을 받고 주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전하고자 한국에서 결성된 선교단체이다.

인격의 생명화와 삶의 생명화(삶의 모든 영역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것)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최상의 사랑과 섬김을 보여 주셨듯이 희개와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민족교회와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자하는 선교단체이다.

정기모임으로는, 매일 정오에 동아리방(학생회관 327호)에 모여 민족과 세계를 위하여 또 여러 가지 중보제복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정오기도모임, 매주 한 번씩 1동 101호에 모여 예배드리는 정오예배모임과 여러 대학의 형제 자매들이 양재역 한사랑 선교센터에 모이는 금요채플모임 등이 있다.

작년 95년 2학기에는, 친구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는 친구초청전도모임을 가졌다. 또, 11월초 3일간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미스바 대각성집회를 가졌는데, 젊은 기독교청년들과 교회들이 모여서 전직 대통령 비자금사건과 전정위기로 어지러운 상황에 있는 민족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였다.

지난 겨울방학에는, 96년 1월 한달간 양재동 한사랑선교센터에서 기독교적 세계관, 율법과 복음, 성경적 물결관, 성경공부 등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사랑 겨울 제자훈련을 개최하였다. 또, 2월 28, 29일 양일간 캠퍼스 신입생 예비학교를 열어 신입생들에게 대학생활에 대한 자신을 갖고 주님을 의뢰하는 마음을 굳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앞으로 96년 1학기에는, 찬양 전도집회, 서적 전시회, 6.25음식막기 국민운동과 7월 1일부터 5일까지 4박 5일동안 제 3회 한사랑 대학생 여름수련회를 가질 계획이다.

연락처: 한사랑선교회 880-8620, 한사랑공동체 873-9840

한국 기독교생회

사회안에서 성경적지도력 배양

ESF(Evangelical Student Fellowship, 한국 기독교 학생회)는 성서한국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공동체입니다.

특별히 E.S.F는 대학 지성인들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대화하며 교제함으로써 설복하고자 깊이있고 지속적인 성경공부, 공동체 지향적 관계성을 통한 인격적인 성경공부를 강조하고 있으며 대학생의 다양한 은사와 전공을 격려하며 개발함으로써 사회안에서 성경적 지도력(Leadership)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우리사회의 기반하고 소외된 사람과 역사에 주목하고 그 회복을 위해서 역사의식은 신앙인이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E.S.F는 매년 불학기와 가을학기(바울성경학교)에 성경학교를 열어 진리의 말씀에 갈급한 친구들을 초청하여 신성한 말씀의 잔치를 베풀고 아침마다 음대 식당에 모여 말씀묵상과 서울대 전도를 위한 기도를 통해 경건과 영성을 훈련하고 있으며 방학중에는 구약성경 통독모임과 수양회를 가지면서 공동체 훈련을 위한 등산과 공동생활, 각종 소그룹모임(세계관 연구, 학술), 등산, 선교여행, 빈민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95년 여름에는 통일과 북한 선교의 vision을 대망하면서 백두산기행을 열다섯명의 형제자매가 하였고 또 베트남 일본등의 선교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모임으로서 금요일마다 채플을 드리고 있고, 학기중에 화요일과 수요일 그룹 성경공부 모임이 신립2동 주택은행 뒷편에 있는 회관에서 있습니다. 또한 '새벽'이란 이름의 회지가 한달에 1회씩 발행되고 있으며 판악 E.S.F책임간사이신 이강학 간사님(기계설계84)과 네분의 Part time간사님이 섬기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파권화, 단자화되어가는 대학사회속에서 벽난로처럼 따뜻한 온기를 받고 등지처럼 편안히 쉴수있는 나눔과 섬김의 제자공동체로 더욱더 거듭나서 더욱더 많은 대학생 전도의 열매가 맺히길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문을 두드리면서 거세게 일어나는 젊은 지성의 고뇌와 이 사회와 세계에 대한 앞으로 부터 생기는 문제의식과 아픔들, 자유와 개성의 발현을 위한 몸부림으로 충만해서 더더욱 상처입기 쉬운 대학 지성인들을 끌어안고 예수님의 말씀안에서 도전하는 성령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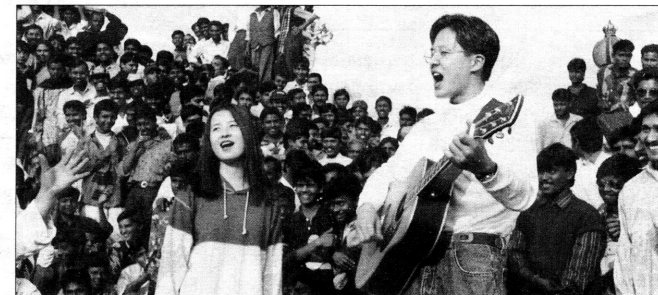
연락처 : 883-5947

■ 인 도

우상으로 가득찬 국가 캠퍼스 복음전도 큰 보람

새해가 시작된 그 한 달 동안 주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멋진 기회를 경험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인도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감격스러울 뿐이다. 그리고 인도에 계시던 선교사님들의 '한국에 돌아 가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100명 이상의 인도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 달라' 는 간곡한 부촉에 큰 부담감으로 글을 쓴다.

내가 대학에 올라 오면서부터 훈련 받아온 선교단체 예수전도단에서 95년 여름



델리대학교 축회에 초청되어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책자를 나누어 주었다

부터 인도와 서남 아시아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부담감으로 전도여행을 준비하게 되고 9월부터 300명의 학생들과 간사님들이 토요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대해 나누며 실질적인 준비들을 하게 된다. 특별 사역을 가진 전략팀, 미전도 족 복음화를 위한

전도팀, 인도 대학의 복음화를 위한 캠퍼스팀 등 31개의 기능을 갖춘 팀으로 구성되어 중보기도하며 준비하였다. 96년 1월 5일, 출발일까지의 우리들의 큰 싸움은 재정에 대한 것이었는데 1인당 135만원의 경비를 채우는데 많은 노력을 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했다. 이 과정